

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개정안 거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국힘, 산안청 신설 제안에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확대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정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분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하면서 이날 분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비정합하고 불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청 신설 2년 후 개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현장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여야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여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 육기공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논의 안해 서울 종로구·중구 선거구 현행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10 총선에서 선거구가 합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종로구와 중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이며, 총 3석이었던 서울 노원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대로 2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중 신안을 목포 선거구로, 무안은 나주·화순 선거구로, 영암은 해남·완

도·진도 선거구와 각각 합치는 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확정위에 이룬 내용의 일부 선거구 잠정합의안을 보냈다. 앞서 확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현행 ‘서울 종로구’와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구역조정 해달라는안을 송부했다.

정개혁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확정위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종로구와 중구는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는 춘천을 갑, 을로 분구하려는 확정위 안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서울 노원구의 지역구 3곳(갑·을·병)을 2곳(갑·을)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확정위 안은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혁위 관계자는 “서울 노원구를 제외하고는 지역구 분구, 합구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간 협의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관위 확정위에 일단 여야가 대략 합의한 지역구만 참고하라고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준석 신당 8%·이낙연 신당 4%...제3지대 2배차

꺾임, 비례대표 정당투표 조사

4·10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선거에 대해 어느 의견에 가장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35%가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32%는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24%는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7%, 정의당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찍게 돼 있다.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이 투표할 것 같습니까’라는 물음에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순으로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8%, 이낙연 신당은 4%로 제3지

대 내에서도 2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어 기본소득당 4%, 정의당 3%, 진보당 1% 등이 뒤따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각 26%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두 3%의 지지율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31%, ‘잘 못하고 있다’가 6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일대일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국힘 공천심사 기여도, 당협위원장 절대평가·신인 상대평가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심사 항목에서 ‘기여도’ 평가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직전 당협위원장은 절대평가로, 신인 등 비(非)당협위원장은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천심사 변경안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비당협위원장 출신 공천신청자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35점을 차지하는 ‘당 및 사회 기여도’ 평가는 점수에 따라 A~E 5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한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을 뒤집은 것이다.

A등급이 35점을 모두 받고, 등급별로 5점씩 깎여 E등급은 15점을 받는다. 지역구별 공천신청자

들은 A~E 등급에 균등 분포되도록 조정한다. 가령 한 지역구의 비당협위원장 공천신청자가 5명이면 등급별로 1명씩, 10명이면 2명씩 배치돼 점수를 부여한다.

당 및 사회 기여도는 공천신청자가 과거 공직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나 사회 봉사활동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공관위원들이 매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평균해 산출한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직전까지 당협위원장이던 공천신청자는 이 35점이 당 기여도(15점)와 당무감사(20점)로 나뉜다. 당에 몸담아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당무감사 점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대평가(A~D 등

급, 등급별 2.5점 차이)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무감사 점수가 비슷하더라도 누구는 A등급, 누구는 B등급으로 분류되면 실제보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게 된다는 이의제기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무감사 점수는 공천심사에 앞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를 위한 ‘교체지수’에도 활용되는데, 이때는 당무감사 점수를 3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당무감사는 당무감사위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사한 종합평가에 여론조사를 합산해 101.25점 만점에서 매겨져 공관위로 넘어온 상태다. 이 가운데 100점까지는 30점 만점을 받고, 이하로는 같은 비율대로 환산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적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일대